

■ 반쪽 서평 ■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기획, 허라금 엮음,
한울, 2011, 422쪽.

한국인의 자녀는 누가 양육하고 있는가? 한국의 대도시 중간계급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아이’가 아니라 ‘아줌마의 아이’라고들 한다. 이들 가정에 들어온 ‘조선족 아줌마’의 존재는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여성이주 현상을 전지구적 구조와 아시아 차원의 움직임에 주목해 규명하고 있다. 그간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를 말하는 학자는 많았지만 아시아 여성이주와 이주결혼, 가족구조 변동, 젠더 관계 변화를 구체적 현상으로서 분석한 책은 드물었다. 더불어 이 책은 한국의 ‘지금 여기’라는 ‘학문적 현장’에 충실하다. 한국은 저출산 현상 속에서 인구 재생산의 일정 부분을 아시아로부터 온 결혼이주 여성에게 기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른바 ‘다문화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화와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는 감정, 사랑, 애정, 친밀성, 돌봄 같은 사적 영역의 행위를 치유산업, 데이트산업, 결혼산업, 돌봄산업, 실버산업과 같은 시장의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있다. 여성이주의 배경에는 이러한 정서적 삶의 상업화가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감정 자본주의(emotional capitalism)’라고 할 만한 사랑과 경제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한국, 일본, 중국(연변),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등지의 여성이주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다. 제1부 ‘지구화와 여성’에서는 지구화 흐름 속에서 아시아 여성이주를 보는 관점과 지향을 논한다. 제2부 ‘아시아 이주의 현장과 가족구조의 변동’에는 중국,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대만, 한국의 여성이주 현상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분석한 글을 실었다. 제3부 ‘여성이주의 시대, 변화와 과제’에서는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들을

통해 한국가족의 부계적 성격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한 글, 한국의 현행 다문화사회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는 글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학술대회 발표문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책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태생적 한계를 피하기 어려웠다. 또한 여성주의 학자들 특유의 생경한 전문용어, 매끄럽지 못한 번역투 문장이 빛나는 문제의식을 가리고 있는 점도 아쉽다.